

올 시즌 첫 경기, 연변룡정팀 소주동오에 1:1 무승부



[특독 관전평]

원정 개막전서 준수한 활약 펼친 연변팀



10일 오후 3시 반에 소주시 곤산체육중심체육장에서 펼쳐진 2024 시즌 리그 제 1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소주동오팀과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점을 챙겼다.

이날 연변팀은 이번 시즌에 새로 합류한 두 용병인 로난과 아블레다, 국내 선수 서계조를 일제히 선발로 출전시키며 개막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확실히 이날 연변팀은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더욱 '원팀'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경기를 했다. 이번 시즌에 갓 합류한 신입 선수들도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다. 이보는 역시 우리가 알던 그 이보였고 로난과 아블레다도 기술적으로나 속도, 몸싸움 등에서 뚜렷한 우세를 보였다. 공격수인 아블레다가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서계조 역시 합류 시 기대했던 그대로 왕봉과 함께 수비선에서 든든한 후방 지키기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경기후 기술통계표를 보면 두 팀은 공 통제권 방면에서 50대 50으로 평형을 이루었고 슈팅에서 연변이 15회로 소주동오팀의 7회를 2배 넘게 앞섰다. 유효 슈팅이 1대3이었는데 그 말인즉 소주동오팀은 그 한번의 유효 슈팅이 동점골로 이어졌던 셈이다.

이날 연변팀은 경기 시작부터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다.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양상을 보이며 비교적 이른 시간에 선제골까지 터뜨렸지만 작은 실수가 나오며 동점골을 내주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연변팀은 공수에 거쳐 상당히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으며 개막전 승점을 챙기며 올 시즌에 대한 희망을 쏘아올렸다.

/ 김가혜기자

두 신입 용병 로난과 아블레다 성공적 신고식
'이보가 이보했다', 여전한 이보의 활약상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서계조 후방에서 든든함 과시
개막전서 승점 챙긴 연변팀, 기대되는 올 시즌



경기가 끝난 후에도 현장에 남아 연변팀을 응원한 500여명 팬들

3월 10일 오후 3시 반,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강소성 소주시 곤산체육중심체육장에서 2024 시즌 리그 제 1라운드 경기를 지난 2023 시즌 첫 상대였던 소주동오팀과 펼쳤다.

김봉길 감독은 풀키피에 19번 동가림을, 수비선은 한광휘, 서계조, 왕봉, 김태연으로 구축하고 리세빈, 이보, 리강, 아블레다로 중앙공격선을 만들었다. 195센치미터 장신의 로난을 선두에 세우며 4-1-4-1 진세로 나섰다. 상대팀 김대의 감독은 풀키피에 리신우를, 수비선에 장경철, 서무, 왕서걸, 연제민을 깔고 중앙선에 빈기문, 장릉봉, 엘마티, 김상을 배비하고 선두에는 고대륜과 실외를 내세우며 4-4-2 진세로 맞섰다.

이날 곤산시의 날씨는 연변의 따스한 봄날을 방불케 하는 영상 16도였다. 강소성, 절강성, 상하이 등 지역에서 모여온 500여명 연변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연변팀을 응원하였다.

전반전은 상호 탐색전으로 시작되었는데 원정팀인 연변팀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첫 코너킥과 슈팅 기회를 만들었다. 한달 넘게 팀을 만든 연변팀과 열혈을 앞두고 급급히 팀을 구성한 소주동오는 공 통제와 진공 조직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연변팀의 우세가 선명한 가운데 아블레다와 리세빈의 측면공격과 로난의 정면 공격으로 상대 수비선을 괴롭히는 한편 탄탄한 방어로 상대팀의 진공을 막아냈다.

16분경, 연변팀의 로장 이보가 중간선에서 여유자작 밀고 들어간 공을 금지구역 밖에서 직접 원발로 먼거리 슈트를 날려 시즌 첫 골을 작렬시켰다. 대방 수비선의 산만을 리용한 교묘한 슈퍼플레이였다. 1:0으로 앞선 연변팀은 상대적으로 자신만만했고 뒤쳐진 소주동오는 추격으로 급하기만 했다. 밀고 당기기로 거칠어진 경기에서 연변팀이 단단히 주도권을 잡았고 공수 방면에서 완전한 우세를 차지했지만 허리케와 수비선의 속도와 관건적인 패스 실수 등 문제로 축구팬들은 손에 땀을 쥐어야 했다.

39분경, 리세빈의 먼거리 슈팅이 대방 풀키피에 막혔다. 연속되는 코너킥 기회로 연변팀은 상대를 압박했다. 43

분경, 소주동오팀 11번 장경철선수가 연변팀 수비선의 실수를 리용하여 동점골을 뽑았다.

전반전을 1:1로 손잡은 두 팀은 후반 들어 상대의 약점을 노리면서 승기를 잡으려고 애썼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김봉길 감독과 김대의 감독의 축구사상이 칼날과 방패로 불꽃을 튀겼다.

승리에 대한 욕망이 강렬한 가운데 두 팀은 거친 동작을 서슴지 않았다. 소주동오는 연변팀의 매끈하지 못한 허리케를 물고 기회를 노렸고 연변팀은 이보와 리세빈, 아블레다의 삼각지세로 기회를 노렸다.

연변팀은 65분경, 체력 소모가 많은 리강을 리호걸로 교체 출전시키고

75분경, 양경범과 허문공으로 리세빈과 천장걸을 교체 출전시켰으나 양경범이 일본도 안돼 무릎관절이 침범당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리룡이 양경범을 교체하여 출전했다. 김봉길 감독의 전술이 위축되는 순간이었다.

후반전 경기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지는데 두 팀은 결사전을 각오하고 승리의 욕망을 불태웠다. 94분경 아블레다의 슈팅이 상대 골문 밖으로 나갔고 소주동오의 느린 진공 속에 경기는 1:1로 마감되었다.

개막전에서 승점 1점을 챙긴 연변팀은 3월 16일 15시 30분, 무석시신체육중심에서 무석오구팀과 시즌 제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 김태국기자

'장저후' 축구팬들 흥교공항서 고향팀 마중



3월 6일 오후에 연경을 떠나 강소성 소주시 곤산으로 향할만 연변룡정팀이 장춘 룡가공항에서 동방항공 MU6356편을 리용하여 상해 흥교공항에 도착한 것은 23시 30분이였다. 30여명 선수단이 공항 출구를 빠져나오자 "장저후도 당신의 흥교공항입니다!"라는 따스한 프랑카드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연변룡정팀 선수단을 영접적으로 맞이한 빨간 응원복을 입은 장저후팬들은 김봉길 감독과 김태연, 이보 선수에게 열정에 넘치는 응원엽서와 꽃다발을 전하기도 하였다. 팬들의 열정에 감동된 감독진은 선수단 전체를 집합시키고 팬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3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곤산체육중심체육장에서 펼쳐진 소주동오팀과의 시즌 첫 경기에도 강소성, 절강성, 상하이 등 지역에서 모여온 500여명 연변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아 연변팀을 응원하였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팬들이 경기장에 남아 선수들을 끝까지 응원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오며 많은 감동을 주었다.

/ 김태국기자

“연변축구는 일종 힘이고 정신이고 신앙”

연변금관건축유한책임회사 2024 시즌 스폰서측 대표로 구락부에 인민페 100 만원 기증



지난 6일,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2024 시즌 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간단한 출정식을 거행했다. 주력팀 모든 구성원들은 드높은 투지와 각오로 출정 준비를 했다. 이날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이며 룡정시당위 서기인 박군봉이 출정식에 참석해 동원연설을 했다.

박군봉은 “연변축구는 일종의 정신이고 힘이며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때문에 축구장에서 끝까지 분투하는 여러분들의 정신에 탄복하며 또한 전체 선수들이 축구장에서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쳐 그에 걸맞는 수준과 품격을 선보임과 더불어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를 관심하고 주목해주는 모든 연변축구팬들에게 만족스러운 답안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서 연변금관건축유한책임회사가 2024 시즌 스폰서측 대표로 현장 기증식을 가지고 구락부에 인민페 100 만원을 기증했다.

/ 종합

빠리올림픽 개막식 시간 확정



현지시간으로 7월 26일 19시 30분 개막

60만명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때가 되면 10만 4,000명의 티켓 구매자가 수면과 가까운 강변에서 관람하고 22만 2,000명의 무료 입장객이 수면과 멀리 떨어진 높은 관람석에서 관람할 예정이다.

한편 빠리올림픽은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되며 32개 종목, 329개 경기에 1만 5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빠리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22개 종목, 549개 경기를 치르게 된다.

/ 신화사